

2010 년 제 1 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



- 일시: 2010년 1월 28일(목) 오전 7:00-8:40
- 장소: 롯데호텔 2F 에메랄드룸 (소공동)
- 연사: 외교통상부 정래원 기후변화 대사 /
탄소금융주식회사(KCF) 노종환 대표
- 강연주제: “코펜하겐의 경험과 앞으로의 여정”/
“국제 배출권 거래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코펜하겐 IETA 회의 동향)
- 참석자: 유엔글로벌콤팩트 167 회원사 등 주요 기업 대표 55인



▪ 회의 요약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녹색경제시대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제 1회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를 1월 28일(목) 오전 7시에 개최하였음. 금번 조찬회는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의 "코펜하겐의 경험과 앞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탄소금융주식회사(KCF) 노종환 대표의 "국제 배출권 거래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코펜하겐 IETA 회의동향)의 강연이 있었음.

- 금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고위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과 올바른 대응을 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강연 1:

- 기후변화 한국정부 협상 대표인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최근 코펜하겐 개최된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5)의 생생한 현장 스케치를 하면서,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를 아래 요지로 평가하였음.

- 주요내용:

-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은 미국의 입장이 주로 반영됐으며, 일부 국가의 반발로 유엔 공식 문서로는 채택되지 못했음.
- 코펜하겐 협상은 구속력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금년말 멕시코 회의등에 앞서 계속 노력해야 될것임. 이 합의문이 UN의 공식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함.
- 한국의 협상 성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2회 정상 연설, 28개국 최종 교섭국가 포함 등 환경 외교적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수 있음.
- 한국의 비의무국(Non-Annex 1)지위를 공고히 하였음.
- 한국은 사전에 자율적 감축 방식 채택을 공식 발표하여, 비의무국 (Non-Annex 1) 으로서 큰 이미지 부각 성과를 견우었음.
- 한국은 녹색성장 국가 비전 아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녹색성장, 탄소 감축및 친환경 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 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함.

강연 2:

- 탄소금융주식회사(KCF) 노종환 대표는 "국제 배출권 거래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코펜하겐 IETA 회의동향) 강연에서 코펜하겐 Accord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요약함.

- 코펜하겐 Accord의 의미

- 국가목표협상이 구속적 목표(교토의정서상)에서 비구속적 목표 논의 체계로의 확대 가능



- 다자간 협상 방식의 한계 노정
 - 각 국가가 제출한 정책 및 조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 예상됨
 - 자국과 의견에 동조하는 국가 및 그룹과의 논의를 강화해 가는 형태로의 전진 가능성이 있음.
 -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는 여전히 탄소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임, 그러나 탄소시장은 국가별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써 계속 활용될 전망.
- EU-ETS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고, 미국시장의 전망은 금년중 상원의 탄소관제법 통과에 달려 있다고 설명함.
- 국제 시장의 전망은 탄소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전망.
 - 배출권 국제적 통용 여부는 국가별 정책 결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외 청중과의 대화시 산업계는 현 기후변화 도전에 전진적으로 대응하여 이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Rio 20 주년 행사의 서울 유치 가능성 여부, COP 15 회의 결과로 볼때 한국이 CO2 감축계획상 너무 앞서가는것이 아니냐는 의견제시, 영국 ETS 시장과 미국 (시카고 등) 시장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강연 자료 첨부:

끝
